

통일민주당 동구지구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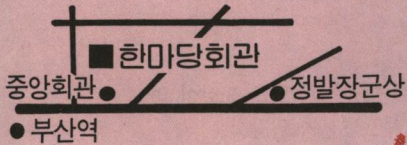
창당대회

4월 9일 (토)

오후 2시

한마당회관

(초량 중앙회관 뒤)



부산의 자부심

인권변호사

노무현



노무현,

그는 왜 국회의원에 출마하는가?

반민주적 독재정권에 맞서 온몸으로 싸우다 경찰에 연행,
단식투쟁으로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고,
부산지역 변호사들이 합심하여 전국 최초의 구속적부심 재판을
청구, 승리하였으나 결국 독재정권에 의해 변호사 업무 정지 처분을
당해야 했던 부산의 자부심, 노무현! 그는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하기 위해 국회 단상에 서고자 하는가.

1. 제6공화국은 5·5공화국이다.

전두환이 단임으로 물러났다고 해서 민주화가 왔다고 과언 말할 수 있겠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경찰이 여당후보 창당대회장의 경비원으로 동원되고
'새마을 사건' 관련자들이 계속 등용, 공천되는 제6공화국은 제5공화국과
그 뿌리를 같이하고 있다. 제6공화국은 민주화를 떠벌리지만
그들의 민주화는 사이비 민주화다.

2. 민정당과 맞설 강한 야당이 필요하다.

독재정권과 뿌리를 같이하는 민정당에게 조국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
야권의 분열을 공작하면서 독주하고 있는 노태우 정권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강한 야당이 필요하다. 시류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기회주의적 인사가 아니라
민주화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3. 가난하고 힘없는 이웃의 편에 서고 싶다.

가난한 노동자의 권익을 찾기 위해 노동문제 무료상담을 도맡아 하고
민주화를 위해 싸우다 구속된 학생들의 무료변론에 앞장서
부산경찰의 '눈의 가시' 였던 인권변호사 노무현! 그는 국회 단상에서
가난하고 힘없는 우리 이웃들의 이픔과 이익을 대변하고자 한다.

4. 부산시민의 심판을 받고 싶다.

6월 민주항쟁의 선두지휘자였던 그를 잡아넣지 못해
안달하던 독재정권에 의해 그는 현재 재판중에 있다.
도대체 누가 죄인인가? 독재정권이 죄인인가 그가 죄인인가!
이제 그는 부산시민이 그 판결을 내려주길 원하고 있다.

부산에서 '신바람 나는 한판 싸움' 이 벌어진다.